

경기도의회 민주당 '민생현안 해결 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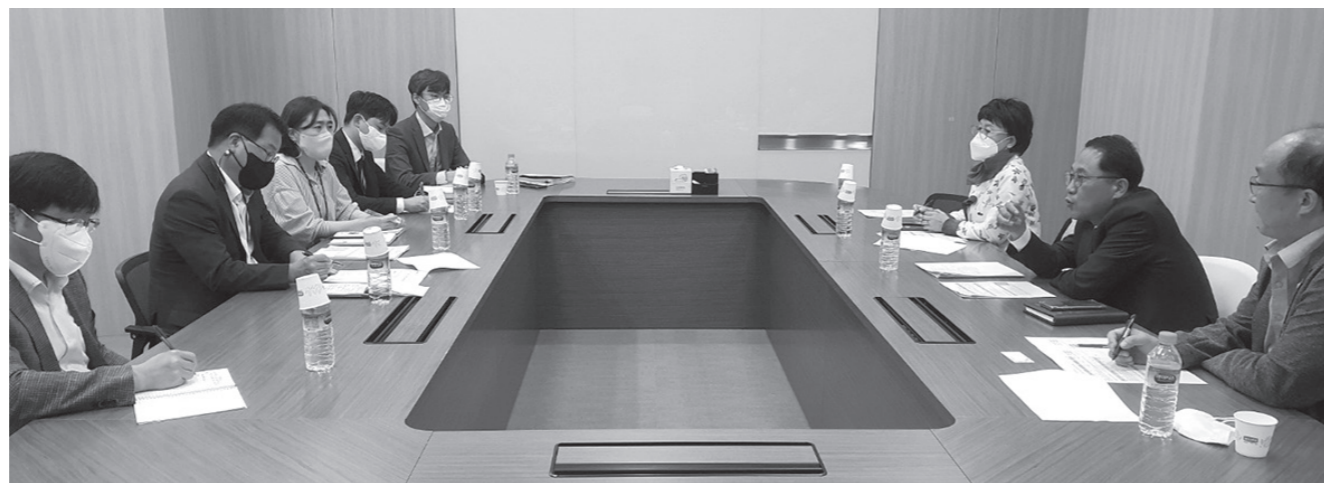
민생현안 업무보고 실시 "현안 해결에 합의 노력"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4일 의회 지하 1층 정담회실에서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와 지역화폐 지원사업 등 시급한 민생현안에 대해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안광률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영(남양주4), 최민(광명2), 김미정(오산1) 부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도청 소관부서 공무원들이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안광률 위원장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단계적 시행, 지역화폐 발행 지원, 반지하주택 대책과 학교급식 예산 확충 등 해결이 시급한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다"면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의 입장에서 도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 등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도 민생과 해결의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4일 의회 지하 1층 정담회실에서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와 지역화폐 지원사업 등 시급한 민생현안에 대해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단계적 시행, 지역화폐 발행 지원, 반지하주택 대책, 학교급식 예산 확충 등 해결이 시급한 민생현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소관부서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다.

교통국에서는 경기도 시내버스 전 노선 준공영제 단계적 시행 사업에 대해 보고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준공영제 추진과 함께 적자노선

의 운영 개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이와 함께 최근 서울시의 택시요금 인상안과 관련해 경기도 택시요금 동반인상 가능성에 대한 도민의 우려를 전달했다.

복지국에서는 노인 등 취약계층 독감 감염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기타 장기요양원에 대한 지원사업 현황을 보고했다.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치과위생사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

하는 종사자로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 현황 점검(경제실) △상습침수지역 반지하주택 대책 진행상황 확인(도시주택실) △학교시설 개방 지원사업 확대 방안 논의(도교육청 기획조정실) △학교급식 예산 확충 방안 점검(도교육청 교육협력국) △학교 운동부 운영비 지원사업 현실화 방안 논의(도교육청 교육정책국) 등이 함께 논의됐다.

김민창 기자

"경제자유구역, 경기북부 추가지정 필요"

김완규 경기도의회 의원 토론회서 정책방향 논의

경기도의회 김완규(국민의힘, 고양12) 경제노동위원회가 제안한 '경기북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방안 모색 토론회가 5일 일산서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경제자유구역의 현실과 문제점, 경기도 차원에서 정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수삼 한양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행사는 "경기북부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과제와 대응 방향"에 대

해 김완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이 발제를 "경기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장철순 국토연구원 지역연구본부장이 공동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박승삼 본부장(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손동숙 위원장(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윤건상 국장(고양특례시 일자리경제국) △정원호 원장(고양시정연구원) △권영기 회장(고양상공회의소) 이상현 회장(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이 참여했고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광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김현아 고양시정 당협위원장, 김영석 고양시의회 의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김완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은

"경기도 균형발전차원에서 경제자유구역 경기북부 추가지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고양시 경자유역지정에는 몇 가지 과제가 있다"고 제안했다. 첫째로 경제자유구역 선정 기준에서 기업입주 수효가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기업 투자유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상기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해 고양시를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하는 등 과감한 규제개혁과 동시에 철저한 준비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손동숙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장장은 "고양시가 가열차게 준비하고 있는 경자유역의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며 고양시는 어려운 여건이 많지만 KINTEX와 같이 탄탄한 지역인프라 구

축을 통한 장점이 많이 있다며 경제자유구역의 우선 지역이 되기 위해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건상 고양특례시 일자리경제국장은 "고양시는 미래로 나아가갈 성장가능성이 충분하다"며 현재의 고양시 자유경제구역 밀그램이 산업부 선정기준에 맞춰 세밀하게 구체화된다면 경제자유구역에 충분히 지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수삼 한양대학교 명예교수는 "고양시의 열정을 통해 눈앞에 산적한 과제를 풀어나가고, 고양시민으로부터 인정과 신뢰를 받기 위한 공감대를 만들어간다면 경제자유구역지정이 현실화될 것"이라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이승철 기자

의회 단신

장애인 체육·예술 분야 발전 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민주당, 의정부2)는 4~5일 이틀 동안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장애인 체육과 예술분야 발전을 위해 '경기도 장애인체육회와 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 관계자가 참석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정담회는 장애인체육과 예술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각 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실무자들과 소통을 통해 장애인체육과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 장애인체육 분야 정담회는 이영봉 위원장, 황대호 부위원장과 이성금 수원시장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등 시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반다비체육관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스포츠용 휠체어 지원, 시군 체육시설 장애인 이용 쿠폰제 관련 도 차원의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 시군 장애인체육회 보조예산의 효율적인 정산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경기도 차원에서 시군 체육회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 대상으로도 비 매칭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둘째날 예술분야 정담회는 이영봉 위원장, 임광현 부위원장과 김용수 경기예총 회장, 미술협회와 사진작가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기예총 회장은 예총 사무직원 일부는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인건비를 받고 있다며 운영비 확대 지원을 요구했으며, 올해로 예총 창립 60주년을 맞아 '경기예총 60년사 발간'과 예술인의 육성·발굴을 위한 '경기도 예술축전 개최'를 위한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

정담회를 주관한 이영봉 위원장은 "도의회와 시군장애인체육회, 예술단체와 소통의 시간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처음부터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이뤄낼 수는 없지만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경기도 체육정책과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민창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 동안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장애인체육과 예술분야 발전을 위해 '경기도장애인체육회와 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각 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실무자들과 소통을 했다. (사진=경기도의회)

시흥시의회, 국외연수여비 전액 반납

올해까지 3년 연속 반납 처리

시흥시의회가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의원 국외연수여비를 전액 반납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코로나19와 지속되는 경기침체 및 급격한 물가 상승 등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국외연수여비 전액 반납 결정에 뜻을 모았다.

올해 책정된 공무원 국외연수여비는 의원 4620만원, 수행공무원 1200만원 등 총 5820만원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반납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시의회는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와 사회분위기를 반영해 지난해 4620만원, 2020년 4620만원 등 의원 국외연수여비 전액을 반납한 바 있다.

송미희 의장은 "어려운 매일수록 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하는데 이번 국외연수여비 반납에 뜻을 함께 해준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며 "국외 연수여비를 직접 살펴볼 수 없게 됐지만 국내에도 우수한 정책 및 선진사례가 있는 만큼 현장을 발로 뛰며 의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근식 기자

인천 주요 도시개발사업 추진실태 점검

인천시의회 도시계획특위 용현·학익구역 현지 방문

인천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지역 내 주요 도시개발 사업들에 대한 추진

실태를 살펴보고자 6일 서구 검단중앙공원과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현장, 용현·학익구역 1블록 등을 방문했다.

'서구 검단중앙공원 사업은 왕길동 산 4-1 일원에 위치한 면적 60만5733㎡ 보전녹지지역으로 당초 민간 특례사업으로 추진되다가 인천시 재정사업으로 변

경됐다. 또 '효성구역 도시개발 사업'은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에 면적 43만4922㎡ 공동주택 3998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용현·학익구역 1블록 도시개발 사업'은 대규모 공장 이전지 154만6000㎡ 땅에 공동주택 1만3149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이날 김대중 위원장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관련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문제점에 대한 시

정요구 및 대안을 제시해 효율성과 공익적 가치를 높여야겠다"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효성구역 등 인천시가 추진하는 주요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 실태를 살펴보고, 각종 논란에서 벗어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는 11일에도 송도유원지와 송도 6·8 공구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볼 예정이다.

안종삼 기자

수도권 전역 광고주와 소비자를 이어드립니다.

▶ 차별화된 오프라인 광고

LED전광판 / 와이드 / 지하철 / 버스

- 도심 한복판 최적의 위치에 성공적인 마케팅 기회
- 고품질의 영상광고로 브랜드 이미지 구축
- 와이드 조영, 스크린 도어, 액자형 광고로 브랜드 인지도 향상
- 다양한 옥외광고로 귀사의 성공적인 홍보 기대

일간경기영상사업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37, 1174~1150호(청천동, 제이타워3차)
TEL : 032)508-0006 / FAX : 032)293-5030